

열왕기하 4. ‘엘리사’가 행한 4 가지 기적들. (왕하 4 장 1-44 절)

들어가기

본 장은 ‘엘리아’보다 갑절의 능력을 얻기를 바랐던 ‘엘리사’ 엘리사가 행한 4 가지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남편을(선지자의 제자) 잃은 여인과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며 행한 기적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극진히 섬겨준 수넴 여인을 긍휼히 여기며 행한 기적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독에 중독된 무리를 살리고,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남편을 잃은 여인과 남은 자녀를 불쌍히 여기며 행한 ‘엘리사’의 기적 (1-7 절)

1)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1 절)

- 그녀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하나였음!
 - 특별히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당신의 종’, ‘당신이 아시는 사람’ 이라고 표현함!
 - 따라서 그녀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였거나, ‘엘리사’가 행한 요단강의 기적을 본 후부터 ‘엘리사’를 따랐던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
-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죽자, 빛 준 사람이 찾아와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
- 참고로 당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혹은 그 가족이 일정 기간 종살이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율법적으로 합법적 일. (출 21:7 레 25:39 느 5:5 사 51:1 렘 34:8)
 -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저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부리지 말라고 명령하심! (레 25:43-46)
 - > 곧 종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을 미리 가르치신 것!
 - 또한 안식년(7년)이 되면 반드시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했고, 희년(50년)에는 모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어야 했음! (신 15:1-6, 레 28:28)

2)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여인에게 집에 무엇인지 있는지 물었습니다. (2-4 절).

- 그럼 당시 그녀가 자신의 집에 있다고 답한 것은 무엇인가? _____
- 참고로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기름은 식용, 조명용(출 27:20), 약용(사 1:6), 화장용(룻 3:3), 접대용(눅 7:46) 등등 생활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 필수품이었고, + 종교용으로도 늘 필요한(레 2:4-6) 중요한 생활 용품이었음!!
 - 그런데 그런 중요한 필수품이 한 그릇뿐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의 가정이 현재 매우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줌!
- 기름한 그릇뿐이란 대답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에게 무엇을 명했는가?
 - ①. 밖으로 나가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릴 것! -> 순종의 자세
 - ②. 이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릴 것! ->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자세
 - ③. 아들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을 것!
 - > 방해 받지 말고 은밀히 행할 것

3)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5-7 절)

- 특별히 기름은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되었음!
- 여기서 간략히 3 가지만 묵상해 보자
 - ①. 하나님은 그녀가 가진 기름 한 그릇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음!
 - ②. 그릇은 그녀가 준비한 것이고, 기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었음!
 - ③. 기름의 양은 그녀가 준비한 그릇 수에 정비례함!
 - > 곧 기름의 양은 그녀가 가진 믿음의 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양이요 축복의 양!
- ‘엘리사’는 여인에게 기름을 팔아 모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명함!

2. 자녀가 없는 수넴 여인을 긍휼히 여기며 행한 ‘엘리사’의 기적 (8-37 절)

1) 한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자신의 동네를 방문할 때마다 늘 극진히 섬겼습니다. (8-10 절)

- 우선 8 절 주목해 보면, 한글 성경은 그녀를 ‘귀한 여인’이라고 번역했음!
 - > 그러나 원어적 의미는 ‘부유한 여인’ 이 더 정확한 표현.
- 그럼 그녀가 ‘엘리사’를 위해 행한 구체적인 섬김은 어떠했나요?
 - ①. 항상 자기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고 쉬고 갈 것을 간권하였음! (간절히 바라고 권함)
 - > 그래서 ‘엘리사’는 항상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방문하게 됨!
 - ②. ‘엘리사’를 위해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쪼대를’ 준비함
 - > ‘담 위의 작은 방’은 히/원 ‘아리아트키르’란 말로, 주위의 방해받지 않고 휴식을 취하며 명상과 기도등을 할 수 있는 2층 방을 말함.
 - > 곧 ‘엘리사’가 자신의 동네를 지날 때마다, 언제든지 자기 집에서 편히 쉬며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방을 따로 만들어 주며 극진히 섬겼다는 것!
- 그럼 왜 그녀는 이렇게까지 ‘엘리사’를 극진히 섬겨 주었을까?
 - 9 절 주목!
 -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 곧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그를 섬기며, 교제하기를 바랐다는 것!
 - >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자.

2) ‘엘리사’는 자신을 극진히 섬겨주는 그녀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11-17 절)

-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그녀를 불러오게 한 후, 자신에게 베풀어준 섬김에 감사를 표하며,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음! (12-13 절)

- 그런데 특별히 이때 ‘엘리사’는 그녀에게 직접 자신의 뜻을 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전하게 했음!
-> 그럼 ‘엘리사’는 왜 이렇게 했을까?
-
- 그럼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수벰 여인이 ‘엘리사’에게 구한 것은 무엇인가? (13 절)
- 아무것도 구하지 않음!
- 특별히 13 절 주목! ‘…,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 원어적 의미는 ‘나는 나의 백성과 어울려 잘 지내고 있다’ 라는 말!
-> CEV. 번역: ‘With my relatives nearby, I have everything I need.’
-> 곧 그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함을 표하며, 자신의 섬김이 결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님을 표현함!
- 이 같은 그녀의 답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계속해서 그녀를 위해 무엇인가 은혜를 베풀고 싶어하자, 사환 ‘게하시’는 그녀에게 자식이 없고, 그녀의 남편이 늙었다고 전함!
- 그러자 ‘엘리사’는 그녀를 다시 불러 내년 이맘 때면 그녀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 축복!
- 그런데 성경은 당시 수벰 여인은 이 말을 ‘엘리사’가 자신을 속이는 말로 여겼다고 기록!
-> 16 절 주목.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 그런데 ‘속이지 마옵소서’란 말은 그녀가 ‘엘리사’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음을 의미함
- 그러나 한 해가 지나자 ‘엘리사’의 말대로 수벰 여인은 아들을 얻게 되었음! (17 절)

3) 그런데 ‘엘리사’의 축복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8-25 절)

- 그럼 수벰 여인의 아들은 어떻게 죽게 되었나요? (18-20 절)
- ①. 곡식을 추수하던 아버지를 찾아 갔다가 갑자기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짐!
-> 19 절, ‘…,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고 소리쳤다는 것!
- ②. 그리하여 아버지는 급히 종을 시켜 아들을 수벰 여인(어머니)에게로 데려가게 함.
- ③. 그 후 어머니의 무릎에 점심때까지 누워있다가 숨을 거둠.
-> 참고로 몇몇 학자들은 갑자기 아이가 머리의 통증을 호소한 후 한나절도 안되어 죽은 것은 아마도 중동지역의 심한 일사병에 걸려 죽었을 것이라 추측.
- 아들이 이처럼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수벰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 ①. 먼저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의 침상에 눕힌 후 방 문을 닫게 함! (21 절)
- 아마도 전에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자신의 침상에 눕혀 살린 일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아들도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 ②. 남편에게 사환 하나와 함께 나귀를 타고 즉시 ‘엘리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청함! (22 절)
 - 이때 남편은 지금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필) 오늘 ‘엘리사’를 보러 가겠다고 하느냐며 말림!
 - > 우선 아마도 그녀는 평소 매달 첫날과 안식일마다 자주 ‘엘리사’를 만나러 찾아갔던 듯!
 - > 그러나 남편은 지금은 아들이 죽은 애절한 날인데, 왜 그를 찾아가냐고 말린 것!
- ③. 그러나 그녀는 남편에게 ‘평안’을 빈 후, ‘엘리사’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출발함! (23-25 절)
 - 우선 그녀가 ‘평안’을 빈 것은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기다리라’고 전한 것!
 - 어떤 학자는 이 장면이 ‘엘리사’를 통해 죽은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그녀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도 해석!
- ④. 이후 그녀는 자신의 명이 없는 한 쉬지 말고 갈멜산까지 달리라고 사환에게 명령함!

3. 수벰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엘리사’ (26-37 절)

- 1) 자신을 찾아 오는 수벰 여인을 본 ‘엘리사’는 사환에게 그녀를 맞이하면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과 아들이 다 평안한지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25-26 절)
 - ‘엘리사’의 사환을 통해 가족이 다 평안하냐는 질문을 받은 수벰 여인은 어떻게 답했는가?
- 2) 그런데 ‘엘리사’를 만난 수벰 여인은 즉시 ‘엘리사’ 앞에 엎드려 그의 발을 안았습니다. (27 절)
 - 이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당황하며 그녀를 ‘엘리사’에게서 떼어 놓으려고 하였음!
 - 그러나 ‘엘리사’는 그녀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니 그냥 두라고 사환에게 명하였음!
 - 참고로 히브리 문화에서 발을 감싸고 안는 행위나 발에 입맞추는 행위는 간절함의 표현!
 - 특별히 27 절 보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 않았기에 자신은 그녀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정직히 고백함!’
 -
- 3) 이때 수벰 여인이 ‘엘리사’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 (28 절)
 - 28 절, ‘그러자 수벰 여인은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 아마도 당시 수벰 여인은 자신이 겪는 고통과 아픔은 결국 ‘엘리사’의 축복으로 인한 것이니, ‘엘리사’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닐까?
- 4) 그녀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29 절)
 - 이때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에게 3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림!

- ①. 허리를 묶고, 자신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갈 것!
 - 이는 마음과 자세를 단단히 가다듬고, 책임감 있게 갈 것을 요구한 것!
- ②. 가는 동안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네게 인사해도 답하지 말 것!
 -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오직 받은 사명을 충실히 완수할 일만 생각할 것!
- ③. 집에 도착하면 자신의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을 것!

-

- 그런데 이때 수빔 여인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함께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엘리사’ 옆에서 함께 내려가기를 구하였음!
 - 30 절, ‘...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가니라’

5) ‘엘리사’의 사환은 수빔 여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사’의 명대로 죽은 아이의 얼굴에 ‘엘리사’의 지팡이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

6) 뒤늦게 수빔 여인과 함께 도착한 ‘엘리사’가 자신의 침상에 죽어있는 아이를 보고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32-35 절)

- ①.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함!
- ②.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신의 입과 눈을 아이의 입과 눈에 맞추고, 자신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아이의 몸 위에 엎드림!
 - > 그러자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게 변하기 시작함!
- ③. 이후 잠시 거실로 내려와 집 안을 돌아 본 후(휴식), 다시 올라가 2 번을 반복함!
 - > 그러자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한 후 눈을 뜨고 살아남!!

- 참고: 이 장면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해석

- ①. ‘엘리사’가 자신의 입, 눈, 손을 아이와 포개 것은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과 일치시킨 것.
 - > 이것은 자신의 몸을 아이에게 내어 주어 그를 살리고 자신이 대신 죽겠다는 대속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볼 수 있음!
 - > 따라서 이 장면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함!
- ②. 아이가 죽음에서 살아남을 통해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란 부활의 소망을 성도들에게 갖도록 함!

7) 이후 ‘엘리사’는 수빔 여인을 불러 살아난 아들을 데려가 돌보게 하였고, 수빔 여인은 ‘엘리사’에게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36-37 절)

4. 길갈에서 독이 든 국을 해독한 ‘엘리사’ (38-41 절)

1) 길갈로 돌아온 ‘엘리사’는 그 곳에서 수련 중이던 제자들을 위해 사환 ‘게하시’에게 큰 손에 국을 끓여 먹이도록 명하였습니다. (38-41 절)

- 그런데 당시 이 지역에 흉년이 심하였음. -> 당시 흉년은 7년간 지속되었음!
- 이때 한 사람이 들에서 들포도덩굴을 발견해 가져왔는데, 그 속에 들호박이 함께 떨어져옴. -> 39 절 후반부 말씀을 주목!!
 -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무작정 따온 열매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확인치 않고 먹었다는 것!
 - 그런데 그 국을 먹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국에 죽음의 독이 있다’고 외침!
- >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급하다고 무작정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쫓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항상 주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

5. 보리떡 20 개로 100 명을 먹인 ‘엘리사’ (42-44 절)

1)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엘리사’에게 보리떡 20 개와 채소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 우선 42 절에 기록된 ‘자루에 담은 채소’는 ‘새로 수확한 곡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음!
- 그런데 7년간의 흉년 가운데 보리떡 20 개와 새로 수확한 곡식 한 자루를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바친다는 것은 대단한 정성이요 헌신!
- ‘엘리사’는 이 음식을 그곳에 있던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에게 나눠주어 먹게 함.
 - 참고로 본문의 100 명이란 숫자는 정확히 100 명을 말한단기 보다는, 100 명이 넘는 무리의 수를 가리킴!

2) ‘엘리사’의 사환은 이 양으론 무리를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하였습니다.

- 그러자 ‘엘리사’는 ‘여호와와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고 약속하셨다고 선언함!
-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의 말대로 음식을 나눠 주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두가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음!
 - 이는 마태복음 14 장의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떠올리게 함!

6.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

7. 중보기도 나눔